



눈에 띄는 지자체 신규 지원사업

오리주산지-전남도

오리농장에 SI 살수소독차량 지원 바닥관리용 트랙터 지원사업 신설

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 제안

2003년 12월 10일 국내에서 첫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올해까지 15차례 발생하며 1억 4,000여 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고 이로 인한 방역예산 지출 누계액은 약 2조원에 달한다. 이 중 오리 발생 건수는 전체의 51.5%로 전체 가금산업에서 오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감안하면 오리에서의 AI 발생이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열악한 오리산업과 이에 따른 시설 문제 등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리사육제한 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오리 주산지의 지자체에서는 오리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구체화 시키고 있다. 주요 지자체의 눈에 띄는 오리관련 신규 지원사업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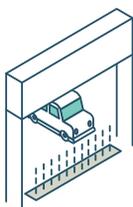
오리주산지인 전남도 오리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AI) 살수소독차량과 바닥관리용 트랙터 지원사업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는 전남도에 오리농장 AI 살수소독차량과 바닥관리용 트랙터 지원사업을 제안, 전남도가 신규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1,300여 건 중에 오리에서의 발생이 660건을 넘어 51.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오리농장의 48.4%가 전남도에 위치, AI 방역예산과 전남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오리 방역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를 시작으로 H5N1형과 H5N6형 고병원성 AI가 전국 확산추세에 있어 AI 방역상 매우 엄중한 상황이며 지난 12월 3일부터 1월 25일까지 전남도에서 고병원성 AI가 8건 발생하는 등 위험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도지회가 AI 방역을 위한 오리농가 지원사업을 제안하고 보다 철저한 AI 방역을 위해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도지회가 제안한 신규지원사업을 자세히 알아본다.



오리농장 AI 방역 핵심요소인 농장 집중 소독위해 축사바닥 왕겨 관리위한 트랙터 지원사업도 제안

AI 살수소독차량 지원 필요

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는 오리농장 AI 방역상 핵심 요소인 농장 집중소독을 위한 살수차량 지원사업을 통해 오리농장의 AI 예방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전남도지회가는 AI 살수소독차량 상시 운영을 통해 오리농장 진입로와 농장마당을 집중 소독해 농장과 축사 내 AI 바이러스 유입을 완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도지회가의 제안서에 따르면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 12월까지 3개년으로 총 150호에 연간 7억 5,000만원씩 총 2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호당 연간 1,500만원 이내 지원이 이뤄진다. 도비 25%와 시군비 25%, 자부담 50%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전남도지회는 오리농장 AI 살수소독차량 지원 사업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오리 사육제한사업과 함께 AI 방역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리 AI 예방 및 발생 최소화로 방역예산절감과 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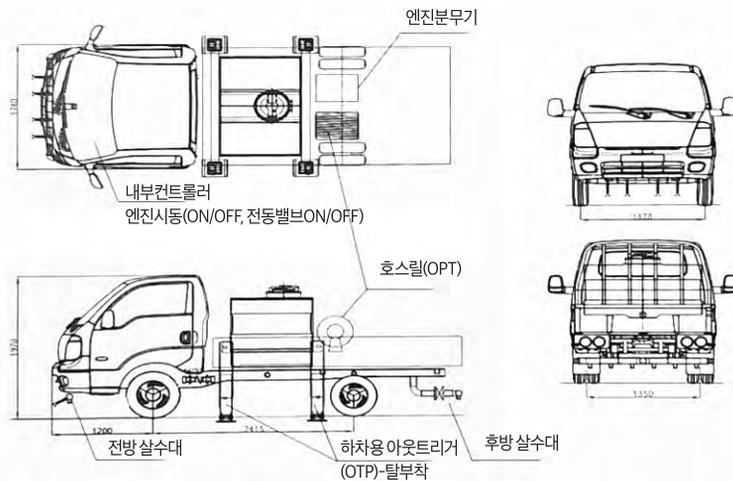
참고 1

살수소독차량 사양

- 1) 엔진양수기 : 혼다엔진 양수기 5.5hp 적용(자동시동)
- 2) 용량 : 1,000L
- 3) 탱크재질 : 폴리에틸렌, 상부맨홀 1EA(적재함 탈부착식)
- 4) 내부설치품 : 컨트롤박스 설치(엔진 자동 ON/OFF), 전동벨브자동 ON/OFF(살수제어가능), 호스릴, 에어컴프레셔 자동 ON/OFF
- 5) 배관설치 : 50A파이프 400mm × 6개소 살수노즐(균등간격설치)
- 6) 세륜소독, 울타리 소독 및 농장 주변 소독

참고 2

살수소독차량 LAY-OUT



바닥관리용 트랙터 지원사업도 제안

AI 방역상 핵심 요소인 축사 바닥의 왕겨 관리를 위한 트랙터 지원사업도 제안한 상태다. 특히 바닥관리용 트랙터 지원사업을 통해 오리 분동통로 내에서만 트랙터를 운영, 트랙터의 외부 출입이 없어 축사내 AI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영옥 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은 “오리 농장에서는 바닥관리가 필수적인데 트랙터 한 대가 마당을 뚫고 지나가 외부출입을 하는 바람에 AI 바이러스 차단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트랙터를 지원받아 마당 출입없이 한 대가 오리 분동 통로를 통해 이동해 AI바이러스를 차단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이번 사업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도지회는 현재 시행중인 오리 사육 제한 사업과 함께 AI 방역효과를 극대화하는

참고 3

트랙터 표준 사양



- 1) 전장/전폭/축간거리/전고: 3400/1610/1935/2490mm
- 2) 엔진출력 : 55ps, 40.5kW
- 3) PTO출력 : 44.9ps, 33.0kW
- 4) 정격회전속도 : 2600rpm
- 5) 실린더수 : 4
- 6) 배기량 : 2287cc
- 7) 배터리용량 : 12V, 70A
- 8) 연료분사방식 : IDI



참고 4

오리농장 트랙터 운영 예시





2026년까지 총 150호에 호당 연간 1,500만원 지원
오리 사육제한사업과 함께 AI 방역효과 극대화 방침

한편 CCTV 등 방역인프라지원사업의 지원항목인 오리 이동 통로를 통해 트랙터를 운영, 트랙터의 농장 마당 출입이 없기 때문에 축사간 교차오염을 차단하고 AI 방역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리농장 바닥관리용 트랙터 지원사업은 역시 올해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개년 동안 연간 25호씩 총 75호 농가에 호당 연간 3,000만원 이내 지원으로 1년에 7억 5,000만원씩 총 22억 5,000만원 사업비로 운영되며 역시 자부담 50%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